

체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이 학 래*

- I. 서 론
- II. 청소년연구의 동향
- III. 청소년문제 개선을 위한 급후의 연구과제
- IV. 결 론

I. 서 론

1. 한국적 특수상황에 있어서의 청소년

오늘날 산업화와 물자의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소비생활에 치우친 나머지 정서문화의 빈곤을 겪는 경우는 비단 한국사회뿐만은 아니다. 선진각국의 일반적 추세로서의 이러한 사회현상은 일부 지각있는 이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킬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사회 상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색다른 주의를 요한다. 그것은 서유럽사회의 경우 수 세대에 걸쳐 완만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며 소비사회로의 진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우리사회의 경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소비사회로의 진입이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까닭에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질적 환경 변화 속에서 정서문화가 압도당함으로써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청소년교육은 한층 더 어려운 과제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현 시점에 이르러 청소년세대의 근본적 개념조차도 변모하고 있다. 즉, 청소년 세대는 여태까지 근대적 사회에서 파악되었던 단순한 연령층으로서의 단위세대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생산주체로서도, 동시에 하나의 소비집단으로서도 명실상부한 위치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의 가까운 장래를 짚어질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 청소년

*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치문화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회, 정치 참여층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 더욱 더 눈에 두드러지는 한국적 특수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역사적 과제로서의 청소년연구의 당위성

19세기 말엽 고종은 이미 「교육입국조서」를 통하여 교육을 체양, 덕양, 지양의 3대 덕목의 조화로운 완성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은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겸비된 전인적 소양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은 물론, 자율적 인간의 형성, 준법정신과 공정성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격완성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하겠다.

급격한 서구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본연의 위치를 상실,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세대에 대하여 기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결같이 깊은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통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 제1차 교육단위로서의 가정의 교육기능의 약화, 학교교육의 권위 저하, 일반사회의 교육적 무관심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여가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양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결국 무질서한 여가이용의 희생물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이란 더욱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하나의 독립된 인간 개체로서의 모든 욕구가 증대되고, 여러

가지의 지적, 감성적, 정서적 작용이 아동기에 비하여 다양해지는 한편, 조화된 정신작용과 논리적 사고양태가 결여된 까닭에 많은 갈등과 강한 욕구에 사로잡혀 정신적 방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또한 균등히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사기를 북돋아주고 여가를 이용, 건전한 신체활동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협동과 단결, 우정과 인내, 봉사정신을 기르게 하여 전인적 인간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종합적 교육체제의 형태로서 체육은 오랫동안 청소년비행의 효과적 예방책으로서 옹호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스포츠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청소년문제의 예방 및 선도책으로서의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단순히 체력증진 및 건강유지의 차원을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의 일부분임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에의 참여는 학교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긍정적 가치, 태도, 그리고 사회적 기능 양성에 한몫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직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적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청소년 여가문화의 질적 빈곤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현실에서 신체적 여가활동 영역으로서의 체육은 청소년이 소유하고 있는 신체적 활동욕구, 정서적 안정욕구, 사회적 결속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주요수단으로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체육활동은

장차 청소년들의 사회적 병리현상의 예방책으로서 최우선적 의의를 지녀야 한다. 이는 바로 청소년들이 그들의 자아를 확인하고 기본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에 의존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과 동시에 체육분야에서의 청소년 육성이 가장 바람직하고도 구체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현실적 수단과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88년에 청소년교육법이 제정되어, 이전에 내무부, 문교부, 총리기획조정실, 총리 행정조정실 등의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청소년문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체육부가 청소년업무 전담부처로서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곧바로 청소년 건전육성과정에서 체육활동이 가장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체육부가 청소년 체육활동 관련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 통제함으로써 청소년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한국을 짊어질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¹⁾ 현실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본 정책적 조치에 힘입어,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수행이 보다 강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간에 필요한 연장과 조정업무의 원활화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의 정비, 건전육성시설의 정비확충, 이들의 복지확대, 부업훈련 등의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거두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일체 업무를 본격적으로 체육부가 전담하게 됨으로써 청소년기의 체육활동 육성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육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소고는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장래 청소년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작은 힘이 되고자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청소년연구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청소년문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한 금후의 과제들을 살펴보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었다.

II. 청소년연구의 동향

1. 사회심리학적 연구 : 청소년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체육활동의 유용성 분석

청소년문제는 한 번의 조사나 연구로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조치로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게다가 사회상황이 변모함에 따라 이들 청소년이 제기하는 문제의 성격과 양태 또한 달라지며, 여기에 대처하는 자세 역시 달라져야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에 관한 한,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항상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은 더 말할 나위없다.

청소년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에 체육활동의 가치를 규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유용을 보장하려면 청소년들의 가치관, 자아개념, 정신건강 등과 같은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에 좀 더 큰 의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일탈 현상에 연

1) 지난 1989년도에 체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청소년문제를 일부 특정집단에 한정시킴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들에게 응용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들의 행태를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추적,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형성된 어떠한 생각에서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인 원인들을 규명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를 두는 분석방법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유용한 연구는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태길, 한완상, 황정규, 이훈구와 같은 전문가들은 청소년문제를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내면세계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행태를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후, 우리사회가 본격적으로 소비사회 단계로 진입하면서, 불가항력으로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사회심리적 아노미, 문화지체, 사회적 역기능과 함께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 그리고 이상행동은 날로 증대해지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 양상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통계자료에 나타난 추세를 보면, 청소년범죄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포악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범죄, 폭행, 강도, 마약복용 등의 심각한 일탈행위마저 점차 확산일로에 있으며, 미성년자의 풍기사범 연령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는 우리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자, 이재창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이 청소년문제를 위와 동일한 접근방법을 빌어 연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 발목을 시도하였다.²⁾ 이들 연구는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상의 특징을 밝혀내고, 자아개념과 가치관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준거치(準據值)를 구하는 데에 궁극적 연구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自我概念)과 가치관 형성과정을 둘러싼 여러 환경요소들을 찾아보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즉, 사회환경으로서 농촌환경과 도시환경, 그리고 가정환경으로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종교, 부모의 생존여부 등을 포함하는 가정의 일반적 분위기, 부모와 자녀간의 대인관계 유형 및 친구간의 대인관계 유형을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 이들 요인들의 개별작용은 물론 이들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자료가 주요 분석원(分析源)이 되는 본 연구결과는 비학생집단인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고아원 청소년들이 정규 학생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이 낮음을 밝히고 있다.³⁾ 또한 학생청소년들보다 이들 근로청소년들과 그 외 비정규학

2) 이재창 외 4인, 청소년문제 종합집단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년 12월, p.302.

3) 전게서, p.169.

생집단 등은 물질지향적인 가치를 더욱 추구하고 있어, 이들의 정서나 교육을 위한 복지제도에 더욱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배경들을 청소년 심리 분석방법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청소년 병리현상의 심각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전반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본 접근방법을 유용한 연구업적들은 크게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더우기 청소년문제 예방 및 치유책으로서의 체육활동의 기능분석에 초점을 둔 기능적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청소년연구의 모태가 된다고 하였다.

2. 기능적 연구 : 청소년문제 예방책으로서의 체육활동

오늘날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질서와 가치, 그리고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혁의 소용돌이는 새롭게 형성된 상황에 적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갈등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변화는 우리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종의 「자아 확인의 위기」*identity crisis*에 빠지게 하여 의식의 혼란을 겪게 한다. 청소년의 자아확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기는 이들의 비행 및 범죄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자아에 눈을 뜨고 그들 나름대로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이 맡고 있는 기능

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작업은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체육활동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본 연구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활과정에서 끊임 없이 경험하게 되는 스포츠활동을 하나의 축소된 사회무대로 간주한다. 즉, 유희 및 경기의 진행과정에서 규칙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일반사회에 있어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준법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사회화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직접 체험한다고 본다. 아울러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의 벽찬 기본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화과정이므로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변동으로 파생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청소년들을 전인적 성숙단계로 이끄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 선도함에 있어서, 비행발생의 원인 및 현황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욱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건전한 인성형성 기능과 올바른 사회화의 가치를 가진 스포츠를 보급, 장려하는 일에 궁극적 연구목표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2000년대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sports for all*에 바탕을 두는 생활체육 개발과 발전이 이 연구작업에 기여한 전문가들의 주된 관심대상이다.⁴⁾

실제로 최근에 들어와서,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의 정착으로 밝고 명랑한

4) 장주호, “복지사회 건설과 사회체육 진흥”, 새마을 스포츠, 1985년 8월, p.37.

임병장, “2000년대 체육의 역할”, 1989년 7월에 한국체육학회가 주최한 한국체육의 오늘과 내일 제하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사명을 갖고 1985년 봄에 설립된 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생활체육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생활체육분야는 한층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생활체육, 직장체육, 성인체육 등과 함께 청소년체육 연구 역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6년 말에 발행된 연구집인 「청소년과 사회체육」은 고희환, 김상국, 김종선, 박영민, 임번장, 이학래 이상 6인의 논문들을 통하여, 오늘날 청소년문제를 생활체육의 관점에서 조명, 구체적인 현황과약을 바탕으로 그 개선방향과 방안, 그리고 정책적 과제들을 분석해내고 있다.⁵⁾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생활체육 육성을 염두에 둔 이들 전문가들에 의한 청소년연구는 대단히 활발하다. 치열한 입시경쟁에의 긴장으로 뒤덮힌 청소년들의 극단적 감성세계와는 정반대로 일반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탕하면 된다는 경박한 사회풍조가 청소년들에게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목적의식을 흐리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 실정이다. 상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접하면, 체육 활동은 자신의 노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의 역할은 크다는 사실이 돋보인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체력장제도에 역점을 둔 학교체육마저 형식화되어버린 나머지, 학교 체육교육에서부터 과정을 무시한 목적도달, 즉 필요한 점수만을 확보하는 데에만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오늘날 우리 교육제도의 맹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 왕성한 체력육성 등의 성과를 올바르게 이루어낼 수 없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근로청소년들의 경우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근로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할 직장체육도 관계법령이 공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들의 체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은 도외시한 채, 소수의 전문경기인을 통한 회사선전에만 치중하는 등 체육을 기업선전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체육은 아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이 청소년교육에 있어서의 생활체육의 기능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⁷⁾

결론적으로, 청소년 체육의 기능적인 면에 역점을 두는 전문가들은 교육적인 면에서 생활체육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거듭 강조한다. 즉, 생활체육은 청소년 위주가 아닌, 가족 단위로, 또한 직장 단위로, 동호인 단위로, 지역 단위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서 건전한 가족 분위기와 부모자식간의 대화, 혹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유도하여 자신들의 세계 내에서 욕구를 소화시키고 순조로이 어른 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에서이다.

5) 고희환 외 5인, 청소년과 사회체육, 서울, 한국사회체육진흥회, 1986년 12월, p.451.

6) 이학래, “청소년 건전육성과 체육”, 1989년 7월에 한국체육학회가 주최한 한국체육의 오늘과 내일 제하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내용 중에서.

7) 이학래,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및 확대방안”, 올림픽 이후의 체육정책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 체육부, 1989년 2월, pp.165-16.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생활체육에 관한 한,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민간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생적 체육집단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관 주도의 하향식 운영체제는 지양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3. 제도적 연구 : 청소년 체육정책의 효용성 분석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체육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한결같은 반응은 한마디로 사회 전반에서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생활체육을 효과적으로 단기일 내에 정착, 보급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엘리트 육성 중심에서 국민의 정서함양과 건강복지 차원의 국민 생활체육 진흥으로 체육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가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연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체육학계의 전문가들은 청소년문제의 예방·치유책으로서의 체육활동의 필연성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의 체육교육제도의 비판과 아울러 장차 지향해야 할 현실적인 청소년체육 육성장치 보완을 주장하고 나섰다. 1980년대에 들어와 매우 활발해진 이들 연구작업의 결과로 우리사회에 현존하는 청소년체육 육성장치의 미비점들이 지적되었고, 정부와 사회 일반에서 각기 나름대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청소년체육 교육현황을 제도적으로 분석평가한 일련의 논문, 보고서들은 이에 기여한 바

가 크다고 하겠다.

동시에, 제도적 연구분석들은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급작스런 정보수급의 대량화와 다양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가생활의 내용과 분량에 대해 전과 다른 욕구와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제도적으로 여기에 신축성있는 자세를 갖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시책과 사회분위기가 오히려 경직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요구에 미처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우리 청소년 교육체제에 있어서 지식획득에 지나친 비중을 부여하는 주입식 교육을 지양, 체육활동의 양적, 질적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학교체육은 모든 체육의 핵심이며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의 충실여부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의 내용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은 물론, 입시교육제도에 의한 학교체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체육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과 체육경시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정을 상기시키면서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체육의 법정 교육시간이 늘어나고 체육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체육 정책결정에 체육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더우기 학교체육은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체육 발전의 모체가 되고 평생체육의 근간이 된다고 보여지지

만, 현재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체육활동으로서의 교과 체육활동과 체육특별활동, 체육행사, 과외 체육활동 등에서 생활체육활동 경험기회가 최대한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지적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방법에 근거를 둔 논문들도 청소년비행과 일탈현상이 점점 잦아지고 특히 청소년범죄가 점차 지능적이고도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의 필요성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부모들과 교육자들, 또한 그 외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지각있고 조화로운 협조에 의해서만 청소년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 범사회적 보장기구가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연구들은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체육 육성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방안의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정부주도형 정책 추진안

체육활동은 본래 개인이나 자발적인 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조정하

고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당분간은 정부의 지도,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체육시설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갖고 운영과 재원 조달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⁸⁾

2) 민간주도형 내지 국민 자발적 참여 장려안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응답자들중 다수가 주로 아침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경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는 체육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체육활동의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조직적인 생활체육정책의 조류에 뜻을 맞추어 정책적 지원에 도움을 얻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연령별 체육참여실태를 살펴본 결과, 학교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10대와 20대의 청소년층이 가장 활발한 참여상태를 보여주었다.⁹⁾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장차 생활체육을 우리 국민생활에 토착화하고 이를 청소년 선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나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체육환경의 민주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입장이다.

8) 이병철, "체육시설 이용 및 관리제도 개선", 올림픽 이후의 체육정책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 체육부, 1989년 2월, pp. 181-190.

9) 이학래,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및 확대방안", 올림픽 이후의 체육정책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 체육부, 1989년 2월, pp.160-161.

그런데, 체육분야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실현된 청소년연구작업들은 청소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과 예산확충 문제, 체육지도자들의 양성문제 등에 집중한 나머지, 오늘날 청소년 체육교육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빈곤에 대해서는 다소 경시하는 감이 없잖아 있다. 전통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소홀하다던지,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다소 열등한 지능의 소유자로 일반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우리사회 특유의 유교적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깊이있는 홍보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점진적이거나 사회적 관념이 개선됨으로써 관 위주의 정책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 요구가 팽배함에 따라 청소년 체육육성에 관심있는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투자해 올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은 틀림없으며, 이는 일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 청소년체육이 나아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한다.

III. 청소년문제 개선을 위한 금후의 연구과제

여태까지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자질과 소양의 올바른 개발에 궁극적 목표를 둔 여러 연구작업의 동향을 사회심리학적, 기능적, 그리고 제도적 분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수행되어온 청소년에 관한 많은 연구들 중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현상파악과 추세분석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문제의 원인진단과 그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특성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관계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특성을 엄격하게 규정하지도 않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행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리고 이들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빈도수 산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의 기회와 시설이 과거보다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선 청소년체육에 역점을 둔 연구작업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있어서 청소년연구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음은 거듭 거론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화를 위한 방안모색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은 연구과제들을 열거해 본다.

1.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본래의 목적 및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행위를 예방, 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밀상화의 욕구를 체육활동의 장으로 유인하고 청소년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원만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육활동의 효율성, 적합성,

흥미성, 지역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다량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체육의 대중화가 촉진된다. 아울러 근로청소년이나 미진학 청소년 나아가서는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환경과 조건들을 고려한 특수한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함으로써 이들이 체육활동의 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소년원 및 교도소의 스포츠팀을 육성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직접적인 선도교육을 실시하는 예를 들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실험적 방안 수립이 그리 불가능한 일인 것만 같지는 않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이 야외 스포츠에 적합하므로 이를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꾀하여 청소년 체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산야, 하천, 해양을 이용한 야외 체육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집단적으로 일시에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소년체육에는 매우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다. 그 내용으로는 체력단련을 비롯하여 환경적응훈련, 담력배양, 극기훈련, 안전교육, 자연학습, 그리고 자연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민속경기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에 적합하도록 창안·응용하여 보급시킴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함께 생활체육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청소년비행과 일탈행위들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몰이해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가족단위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은 청소년문제의 예방 및 건전 청소년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주말이나 휴가기간을 이용한 가족등반이나 야외캠핑, 테니스, 볼링, 수영과 같은 가족단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은 가족구성원간의 대화 및 화목 도모의 계기를 마련하고 가족간의 정신적 긴장과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창안과 보급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양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통계적으로 가시화하여 일반 가정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임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많은 부모들로 하여금 청소년교육에 있어서의 가족 스포츠의 효과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여 본 방안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2. 청소년체육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및 청소년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각종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체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실시하는 일이다. 즉, 체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기풍 조성, 인간 소외현상의 극복, 그리고 만남의 기회 확대를 기본목표로 하여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 방영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과감히 청소년체육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할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

에도 대중매체에서는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체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제작, 방송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체육행사를 계획, 방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단체의 체육활동 강화

청소년단체는 그 존립목적상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연수사업,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행동목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많은 청소년을 그 활동의 장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단체들의 체육사업 확대 및 활성화는 청소년체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위락·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체육활동의 중심점이 되어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청소년단체들이 생활체육 실천을 자체 사업목적과 직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체육활동을 청소년 지도활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문제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체육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전문체육지도자의 확보 및 청소년체육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청소년단체 체육활동의 조직화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흥미나 환경조건을 직접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 민간 청소년단체들에게 이러한 집중적인 청소년연구작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그 외 청소년 체육활동 진작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단체에게 체육활동 장려금을 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민간 청소년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유출을 유치하는 정책으로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단체들간의 서로 중복되는 체육활동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체육 협의기구를 조직하여 각종 청소년단체가 전개하는 체육활동의 시설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자 배치, 사업시기 등의 업무를 유기적, 연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확립하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단체에서 체육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 체육지도자가 임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문제에 전문적 자질을 보유하고 사명감을 소유한 체육지도자를 확보하려면 전문직으로서의 적절한 소득 및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유자격 체육지도자의 임용의무제 시행 및 청소년 체육지도자 연수기회의 확대와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청소년체육 전담기구의 확대 및 강화

그동안 청소년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어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있어서 중구난방식의 절

름발이 정책 수립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에 청소년교육법을 제정하여 체육부가 청소년업무 전담부처로서 활동하기 이전에는 청소년관련 업무가 내무부, 문교부, 총리 기획조정실, 총리 행정조정실 등의 여러 부처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어 왔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체육부가 청소년 육성업무에 대한 전담부처로서의 활동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은 뒤늦게나마 매우 고무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청소년 건전육성과정에 있어서 체육활동이 가장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체육을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체육부는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아 청소년국이 신설되어 있으나 청소년 체육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부재하므로 직제에 청소년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체육지원과 체육 육성업무, 조사기획 업무 등 청소년 체육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내의 기존 청소년체육업무 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각 지역별로 활용하면 청소년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비정상청소년 연구와 특수체육의 활성화

청소년층의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극히 정상

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건강한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처한 비정상적인 청소년들의 비중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인구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상황은 매우 빈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들 청소년 인구층 모두에 대해 체육활동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는 정상적인 청소년들이나 다른 어느 연령층의 인구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사료된다.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런 상태에 놓여 있다던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특수한 상태, 그 외 가정결손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층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대상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결손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바로 예방체육 *preventive physical education*, 치료체육 *habilitative physical education*, 그리고 재활체육 *rehabilitative physical education*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한다.¹⁰⁾ 장차 비정상적인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육성을 골자로 한 연구작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도 더욱 확대, 강화하여야 하겠다.

IV. 결 론

청소년 건전육성의 과업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성큼 다가온 2000년대의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민족적 과제이다.

10) 홍양자, "청소년과 체육", 1990년 6월, p.2.

급변하는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장차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의 청소년들이 퇴폐적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문화에 오염되고,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청소년체육을 그의 본질적, 보완적, 예방적 기능을 살려 널리 보급·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현실적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전전육성 과제가 매우 양호한 시기와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몇 차례의 연이은 국제적 체육행사들을 전세계 시민의 관심 속에 잘 치루어낸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대단히 신장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체육행사를 겪으면서 얻어낸 다각적이고도 다층적인 경험이 한국의 생활체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하는 데에 대단히 유용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실제로 1988년도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문화분야보다 여가활동으로 스포츠분야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희망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에 스포츠부문에 관심을 보인 그룹이 38.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관광여행부문, 취미창작부문, 오락부문 등의 순서였다.¹¹⁾ 게다가 국민 전체의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한 앙케이트 자료는 그 어느 연령층보다도 청소년층이 체육활동에 대하여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경험적 연구자료들은 체육분야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연구에 몰두하기에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힘입어 청소년체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명의식을 갖고 연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의욕적인 연구작업이 보다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풍부하고도 살아있는 연구자료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체육활동에 대해 갖고 있는 요망사항들을 자발적으로 표출시킬 기회를 대폭 늘임으로써, 단지 관련행정청들에 의한 일방적 수단과 장치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의 잦은 대화, 즉 공청회, 사회학적 앙케이트 등의 정기적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장치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자율적 바탕 위에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의 분위기를 조성, 정착시키는 과정과 병행하는 청소년연구야말로 장기적인 안목 위에 다져진 가장 생명력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11)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에서 1988년에 펴낸 국민여가활동 참여실태조사 자료에서.

<ABSTRACT>

The Trend of Researches and the Subjects on Adolescence in Physical Education

Hak-Lae Lee

Present juveniles, who will play a major role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are polluted by the current social cultures decadent tendencies caused by the modernization process occurring now.

School education aims at the education for whole person, but it is not properly attaining this goal. In order to train a juvenile in the education for whole person,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use of juvenile sports' essential, complemental and protectional function and to spread and practice it broadly.

In practice, through sports activity, the task of bringing up a juvenile soundly lies in proper time and circumstance. we have had several successful international sports demonstrations that have attracted the world's citizen's interest and Korean citizen's.

In fact, there is no escaping that our sports are much more extensive than in the past. These experiences have given us a rich and complex outlook on sport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se sports experiences are very useful for the lives of Koreans approaching the standard of an advanced countr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survey carried in 1988, our nation's desire for sports in their

leisure time was far greater than their desire for cultural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sking "what one likes to do in his leisure," 38.87% replied sports. This was the highest response followed by touring, hobbies, artistic pursuits and relaxation. Owing to this fact, juvenile sports experts should engage in their studies with a fresh awareness of his duty. To gain more constructive and realistic solutions from their research, something must be done to insure plentiful study materials based on current trends. Above all, we should give more opportunities for juvenile to express freely their sports activity and desire for sports. This opportunity, of course, should not be dogmatic or authoritarian.

It should be regulated by public opinion and must proceed through regular channels; for example, open hearings or social surveys.

In addition, we must guarantee juvenile's direct and positiv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sports. The juveniles, themselves, should learn self-control, sportsmanship and leadership.

Finally, I am sure that juvenile studies combined with all the above things has an eye for the future and is a valuable study.